

勤 学 篇

子曰、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공자가 말하기를, 넓게 배우고 뜻은 굳게 갖고 간절하게 묻되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나가면 인(仁)이 그 안에 있다.

⇒孔子が言うのに広く学んで志は固く持って切実に問うが、近いことから思っていけば仁がその中にある。

莊子曰、人之不學

如登天而無術

學而智遠 如披祥雲而觀青天

登高山而望四海。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깊으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 사해를 굽어보는 것과 같다.

⇒莊子が言うのに人が学ばなければ才能なしで空に上がろうとすることのようで、学んで知恵が深ければ険しい雲を掻き分けて青い空を見て高い山に登って四海を見下ろすことのようになる。

礼記曰、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義。

⇒《예기》에 이르기를, 옥(玉)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 [器] 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義)를 알지 못한다.

⇒《礼記》に伝わるのに玉は整えなければ器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し、人は学ばなければ義が分からない。

太公曰、人生不學

如冥冥夜行。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太公が言うのに人が学ばなければ暗くて暗い夜道を行くことのようにだ。

韓文公曰、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

⇒한문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고금 [古今:옛날과 현재의 학문과 사실(史實)] 을 알지 못하면 말과 소에 옷을 입힌 것과 같다.

⇒韓文公が言うのに人が古今 [昔と現在の学問と史実] が分からなければ馬と牛に服を着せたことのようにだ。

朱文公曰、家若貧 不可因貧而廢學 家若富 不可恃富而怠學。

貧若勤學 可以立身 富若勤學 名乃光榮。

惟見學者顯達 不見學者無成。

學者 乃身之寶 學者 乃世之珍。

是故 學則乃爲君子 不學則爲小人 後之學者 宜各勉之。

⇒ 주문공이 말하기를, 집이 만약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집이 만약 부자라도 부(富)를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배우면 출세할 것이며 부자가 열심히 배우면 곧 이름이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직 배운 사람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 배운다는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고로 배우면 곧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므로 후에 배우는 사람들은 각각 의당히 힘을 써야 한다.

⇒ 朱文公が言うのに家がもし貧しくても貧しさのために学ぶことをやめてはいけなし、家がもし金持ちでも富を信じて学ぶことを怠ってはいけなし。もし貧しい人が熱心に学べば出世するはずで金持ちが熱心に学べばすぐ名前が光榮で輝くでしょう。

ただ学んだ人だけが立派になることを見だし、学んだ人が志を果た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見られなかった。学ぶということはすぐ身の財宝ですし、学んだ人はすなわち世の中の財宝だ。ゆえに学べばすぐ君子になって学ばなければ小人になるはずなので後に学ぶ人々はそれぞれ当然、尽さなければならない。

徽宗皇帝曰、學者 如禾如稻 不學者 如蒿如草。

如禾如稻兮 國之精糧 世之大寶。

如蒿如草兮 耕者憎嫌 鋤者煩惱。

他日面墻 悔之已老。

⇒ 휘종황제가 이르기를, 배운 사람은 벼 [禾栢] 와 같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쭉 [蒿草] 과 같다. 배운 사람은 벼와 같아서 나라의 좋은 양식 [精食] 이요 세상의 큰 보배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쭉과 같아서 농부가 미워하고 김매는 사람이 힘들어 한다. 훗날 담을 면(面)한 듯 답답하여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다.

⇒ 徽宗皇帝が言うのに学んだ人は稲のようで学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は蓬のようだ。学んだ人は稲のようで国の良い精食であり世の中の大きい財宝だ。学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は蓬のようで農夫が嫌うし、草取りする人が苦しがる。後日、塀を面したように息苦しくて後悔してももう遅い。

論語曰、學如不及 惟恐失之。

⇒ 《논어》에 이르기를, 배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배우고 오직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 하라.

⇒ 《論語》に言うのに学ぶに及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ように学んで、ただ学んだことを失うか恐れなさい。